

충장로 4-5가 상권 활성화 '충장상상큐브' 조성 차질

72억 투입...당초 올해 '체험형 문화복합공간' 완공 예정 용역 6개월 중단 탓 1년 연기돼...區 "민원 최소화 위해"

광주 동구가 충장로 4-5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충장상상큐브' 조성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025년 운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4월 동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공유 축제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총사업비 72억원(기금 31억원·시비 30억원·구비 11

억원)을 들여 충장로 5가 50-2번지 일원에 체험형 문화복합공간 '충장상상큐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소요 재원 중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시비는 광주시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선정을 통해 충당됐다. 연면적 1천600㎡·지상 3층 규모의 충장상상큐브 1층에는 추억의 테마거리

상설전시관이, 2층에는 다목적 창작실·충장TV 스튜디오·축제자료실이, 3층에는 운영사무실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2021년 5월 조성 사업에 착수, 이듬해 9월 부지 매입 및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6월 건축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했다. 또 올해 안에 충장상상큐브 조성을 마치고 다음 해부터 정식 운영을 하려 했다. 그러나 준공 및 정식 운영은 당초 계

획보다 1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끝났어야 할 실시계획용역이 같은 해 6월 갑작스레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동구는 충장상상큐브 민간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밟아 단독 응모한 A 기업을 뽑았는데, A 기업으로부터 공간 배치 및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단된 용역은 지난해 12월 재개돼 올해 4월 마무리 됐다. 이에 동구는 곧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BF 예비인

증을 받았으며, 현재 광주시로부터 계약심사를 받고 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사업 추진 과정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밀린 데다, 계약심사 통과마저 지연되고 있어 준공과 정식 운영 도입 시점도 1년 뒤로 밀렸다. 이와 관련, 인근 한 자영업자는 "충장상상큐브에 대해 들은 게 벌써 3년 전"이라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권을 활성화할 요인이 되겠다 싶어 기대했는데

1년이나 미뤄졌다고 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건축 설계자와 민간위탁업체 간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준공 후 민원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해 용역을 중단했다"며 "민간위탁업체를 용역 전에 미리 선정하고 의견을 듣는 등 사업 순서를 달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가 상인들을 고려해 더 이상의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정기자

잔고증명 위조·마약 투약...베트남인 3명 구속

광주경찰, 74명 검거...외사계 폐지 후 치안 공백 해소 위해 집중 단속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국제범죄수사팀)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3명을 구속하고,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3명 중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체류비자 연장 목적으로 은행 잔고 조작을 시도한 자국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격을 변경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잔고 증명을 허위로 꾸민 자국민에게 하루 10%의 이자로 불법 단

기 대출을 했고, 그에게 돈을 빌렸거나 변행을 도운 베트남인 30명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친 마약 투약 혐의도 밝혀냈다. 구속된 베트남인 중 나머지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필러,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혐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예약받아 전국각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밖에 학원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17명), 도박(6명), 기타 범죄(9명)를

저지른 베트남인들도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하반기 외사계를 전면 폐지한 경찰 조직 개편 이후 외국인 범죄는 사·도 경찰청 단위 수사팀이 전담하고 있다. 광주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외사계 폐지 후 외국인 범죄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자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펼쳤다.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4만 4천63명이다. 광주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한다. 국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광주 곳곳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 생겨나면서 치안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범죄 단속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돌파구 못 찾는 의정갈등 지난 2월 정부의 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후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상반기를 넘겼다. 의료계도 정부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광주 의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김영근 기자

장성농협 조합장, 금품 선거운동 혐의 법정구속

돈 받은 조합원 등 16명도 벌금형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천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 피고인 3명과 공모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범들은 A 조합장과 공모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A 조합장과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 조합장으로 추정

된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를 밝혔다. A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장성군 주민 16명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 액수를 고려해 30만~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만~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안재영 기자

'골프장 캐디 추행' 전직 은행장 벌금형

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A(7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곡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와 함께 이동하던 중 "허리가 제일 아파"고 말하며 양손으로 허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정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의사, 전직 고위 공

무원 등과 골프를 하면서 성적 영상을 시청하며 농담을 반복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또 일행 중 1명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길에서 소변을 보기도 해 피해자가 이를 담당 탐정에게 알리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A씨 일행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강제추행 범행까지 발생했다. 전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목포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숨져

무더위를 피하고자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목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분께 목포시 죽교동의 한 유원지 앞 바다에서 중학생 A(14)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40여분 만에 해안가로부터 30m 떨어진 수심 35m 지점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역 중학생인 A군은 이날 시험이 끝난 뒤 친구들과 유원지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